

<2012년 12월 5일 수요일 새벽 잠언>

41. 성자 주님은 여러 꼴로 나타나신다.

42. 만물 통해서, 생활 여건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43. 성자 주님이 쓰고 나타나시는 여건과 사물은 네 마음을 노크하는 벨이다.

44. 성자 주님이 노크하시면, 그 여건과 사물만 보지 말고 노크하고 들어오는 애인을 보아라.

45. 꼴을 보는 자는 참을성이 많은 자요, 근성을 고친 자다.

46. 성자 주님은 만물로 노크하면서 오시는데, 사람들은 만물만 쳐다보며 논다.

47. 성경에 성자 주님은 ‘구름’으로 노크하면서 재림한다고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 구름만 쳐다본다. 정말 그 꼴을 못 보겠다.

48. 노크하고 들어오신 주를 보고 신랑을 봐야지, ‘하늘 구름’만 쳐다보느냐. 구름 타고 오신 주를 맞은 자들아. 너희들도 주를 맞았으면 주를 봐야지, ‘청중 구름’만 보느냐. 이 답답한 꼴을 어디까지 보겠느냐. 온전히 주를 맞는 자들과만 잔치할 것이다.

49. 성자 주님이 육신 쓰고 오셨는데, 그 꼴을 못 보고 안 믿느냐. 성자가 하신 일을 육만 보고 안 믿으면, 너만 구원길 못 가고 손해다. 성자가 쓰시는 그 육도 주다.

50. 해를 맞고 해와 같이 살아야 어둠의 꼴 속에서 살지 않는다.

51. 이 시대 사람들은 마치 혼인 잔칫집에서 신랑 꿀 안 보고, 음식 꿀과 손님 꿀만 보는 신부와 같으니, 신랑 마음 꿀이 어떠하겠느냐.

52. 때가 되면 이 꿀 저 꿀 안 보고 오직 신랑 꿀에 빠진 신부만 데려간다.

53. 음식 꿀, 손님 꿀만 보던 신부는 때가 되어 음식도 안 보이고 손님도 안 보이면 그제야 신랑 꿀을 보려고 신랑을 찾아다닌다. 그때 신랑 꿀을 볼 수 있겠느냐.

54. 허둥지둥하는 신부의 꿀을 봐라. “내가 녀이 나갔나 봐. 음식 꿀만 쳐다보고 손님 꿀만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 혼자 있는 꿀이 되었구나.” 하고 탄식한다.

55. 신랑을 맞아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부들이 창밖으로 신랑을 못 맞은 자들의 꿀을 쳐다보면서 “하마터면 나도 저 꼬락서니 될 뻔했네.” 하며 충격 받고, 옆에 있는 신랑 성자 주님을 끌어안고 감사 감격하니 신랑 되신 성자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정신이 드는구나!”

56. 그리고 또 신랑 되신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꿀 저 꿀 다 보고 참고 견디었기에 신부 차원에 오른 거다. 나를 끌어안고 놓지 마라.” 하신다.

57. 무슨 꿀을 하고 다니든지 가만둬라. 그래야 그 꿀을 제대로 알게 된다.

58. 성자 주님은 성경에 다시 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 꿀 저 꿀 다 말해 놓으시고, 다시 오셔서 그대로 행하신다.

59. 이 꿀 저 꿀 가만히 두고 봐라. 꿀을 못 보고 못 참고 더 잘해 주려고 돕고 손대지 말아라. 그러다 귀뚜라미 다리 끊어지듯 해가 된다.

60. 다쳐서 상처가 난 곳이 다 나아 가는데, 딱지 앓은 것을 보고 흉하다고 꿀

을 못 보고 쥐어뜯으면 오히려 벗어나서 치료 기간이 더 늦어진다. 그리고 흉터 생긴다.

61. 꿀을 꼭 봐야 된다. 꿀은 꼭지다. (그림)

62. 꿀을 보다 보면, 반드시 결국 꿀을 보게 된다.

63. 꿀을 보고 참고 살아라. 그러면 결국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가서 젓도 먹고 꿀도 먹고 살아간다. (그림)